

활기 있고
快適한
漁港魚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중로구원남동103번지
인쇄인 金在克 TEL. 3673-2851~4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月刊] 第158號

THE FISHING PORT NEWS

2001年 2月 25日(日曜日) (1)

한국어항협회 2001년도 정기총회 성료

수산기반정비사업 발전방향 모색 등 사업 확정 낭만적인 어촌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 실현키로

어항인의 화합과 단결된 힘으로 냉엄한 현실 극복해야

한국어항협회는 2월 23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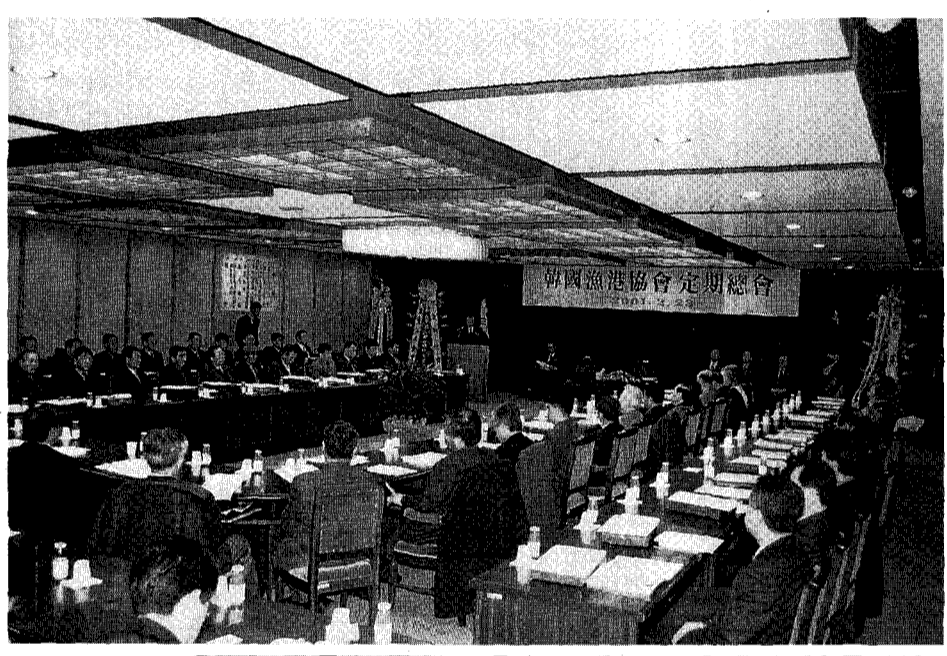
100여명의 내외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총회에서 △수산기반 정비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어항 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강화 △어항 환경정화사업의 중점적 추진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권익보호 △경영효율화와 조직경쟁력 강화 등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박재영 차관보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우선 올해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하여 우리 수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어가부채의 경감을 위한 대체자금을 추가지원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업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틀을 새로 짜기 위한 종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 장관은 "어항이 어촌지역 발전에 있어 명실상부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어항은 조기에 완공하고, 기본시설이 완료된 어항은 유통·관광·해상교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또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바다환경의 조성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어항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어항청소 및 수중침적폐기물수거사업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의 바다가 예전과 같이 청정해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협회 임직원 및 어항인은 사명감과



■ 한국어항협회는 2월 23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00여명의 내외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우리나라 어항어촌 발전 및 협회발전이 공이 큰 어항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자부심을 갖고 더욱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정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무한한 성장의 시기라고 말하고 "이제부터가 진정으로 한국어항협회의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란 사실을 깊이 인식, 우리의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역량을 고루 갖추어야 하며 "먼저 어항인의 화합과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손정식 회장은 "21세기가 시작된 올해는 협회가 활동적이고도 실제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혁신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어항인은 열린 가슴과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또 "21세기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어촌, 활력 있고 쾌적한 어항을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고 말하고 "어항인의 힘과 의지를 모아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만남의 장 나아가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국민적 어항어촌 구현을 위해 다같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우리나라 어항어촌 발전 및 협회

발전이 공이 큰 어항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 수여자 명단 △관기영 태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효립 우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혁 남광건설주식회사 부사장 △피상익 주식회사 사삼양사 업무이사 △김용현 금광기업주식회사 소장 △표창패 수여자 명단 △박일신 해승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식 유한회사해양산업 대표이사

해양수산부장관 치사

오늘 뜻깊은 한국어항협회의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협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손정식 회장을 비롯한 어항인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격동의 20세기가 가고 '해양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진리가 되어버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은 21세기를 맞은 우리에게 더욱 엄숙한 사명감과 결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인간의 의식주를 모두 바다에서 구하는 청색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세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어항인 여러분들의 탐과 노력과 열정은 모두 훌륭한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양수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금년은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기반인 수산업을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미래의 자원 및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해양과학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등 해양수산업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야 할 중요한 한 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자 합니다.

우선 올해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하여 우리 수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체자금을 추가지원하고, 어업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틀을 새로 짜기 위한 종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겠습니다. <2면에 계속>



손정식 회장 인사말씀

먼저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한국어항협회 정기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처럼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희망을 이루하는 21세기를 만들자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20세기를 마감하고 도전과 희망의 21세기를 맞아 한국어항협회의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갖게 된 오늘, 저는 뜨거운 감회를 느낍니다.

한국어항협회가 고교의 소리를 외치며 태어난 지 14년, 특수법인으로 역사적인 전환을 한지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척박한 동토에 한 알의 밀알을 심는다는 의욕 하나만으로 출범한 한국어항협회가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느덧 소년기를 넘어 청년기를 향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에 때로는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한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어항인 여러분의 희생적인 성원과 관계 당국의 전폭적인 배려 덕분임을 생각할 때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지난 20세기가 우리 한국어항협회의 수태와 착근의 시기였다면 올해부터 시작된 21세기는 무한한 성장의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은 모두 21세기에 펼쳐질 한국어항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합니다. <2면에 계속>

(1면 해양수산부 장관 차사에서 계속)

우리 수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는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과감히 축소하여 어업의 단위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잡는 어업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의 후손까지 생각하는 자원관리형 어업의 정착을 위해 자원조성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등 기르는 어업의 육성도 서두르겠습니다.

자원고갈을 가속시키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종래의 지도와 단속을 되풀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체적인 어업구조 조정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위한 각종 방안과, 어항어촌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제반 사업들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호르몬 등 신종 해양오염원에 대한 연구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류오염에 대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방재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어항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어항 청소 및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도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의 바다가 예전과 같이 청정해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항인 여러분도 이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더욱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정부에서는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탄을 받은 공공 부문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99년부터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혁의

어항이 어촌발전의 중추역할 협회 수행사업 적극 지원할 터

특히 어항이 어촌지역 발전에 있어 명실상부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어항은 조기에 완공하고, 기본시설이 완료된 어항은 유통·관광·해상교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관련 대학의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한국 발전프로그램'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소 해양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착공한 '이어도 해양종합 과학기지'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해심층수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시화호 및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을 위한 기초설계를 실시하는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바다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2차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이 시작되는

가속화 및 역동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해양수산 산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항협회도 정부의 의지를 깊이 통찰하시고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발굴·확대해 나가므로써 이제까지의 국가의존 경영체제에서 탈피하여 자립형 경영체제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어항인 여러분께서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함께 단결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앞에는 틀림없이 영광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어항인 여러분의 분투 노력을 거듭 당부드리며 한국어항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어항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근해 어항을 수거하는 기적야

(1면 회장 인사말씀에서 계속)

따라서 이제부터가 진정으로 한국어항협회의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란 사실을 깊이 인식했을 때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각오와 결의를 새삼 다지는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항인의 화합과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많은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지와 역량을 고루 갖추지 못하면 그대로 도태되고 마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21세기가 도전과 희망의 시대라는 의미는 바로 이처럼 우리 앞에 다가올 수많은 난관을 과감히 물리칠 수만 있다면 밝고 아름다운 찬란한 희망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어항인 여러분의 끊임 없는 연구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회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실 안주는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자칫 냉혹한 현실에서 좌절의 고배를 마실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한국어항협회 역시 이런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을 다섯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수산기반 정비사업의 발전방향을 모

색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어항어촌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그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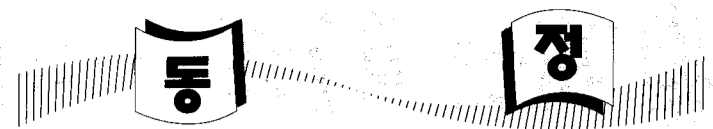
둘째, 어항 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제4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어항어촌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어항어촌을 지키고 발전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어항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셋째, 어항 환경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항청소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수년간 협회에서 추진해 온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과 강원도 침체망 인양사업을 수임하여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새천년의 어항·어항·어촌을 일체로 한 종합적 수산기반시설로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이에 따른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효율화와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구적인 수익사업 등을 개발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리 거창한 구호와 목표도 실현이 되지 않으면 때아리 없는 공허한 울림이 되어 휴지 장보다 못



청와대에서 올해 주요 업무보고



盧武鉉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8일 청와대에서 수산업 구조조정과 소규모 어촌 및 어항을 레저 휴식 관광기능을 보유한 다기능 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올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할 주요업무 중점 추진계획 및 현안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12일에는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관련 설명회에 참석, 23일에는 컨테이너처리량 세계3위 기념세미나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2월2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서울대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에 참석, 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민련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주관 2001년도 농림해양수산 추진계획 설명회의에 참석, 19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월례회의에 참석, 26일에는 어민신문 이사회에 참석, 27일에는 국가학회 창립발기인 대회에 참석, 28일에는 해군회관에서 열린 해양연맹 이사회에 참석.

▲정상욱 수협중앙회장은 2월14일 수협10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직제규약을 개정, 22일에는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2월6일 광주시교육청 정보교육대상 시상식에 참석, 9일에는 범죄예방 간담회에 참석, 15일에는 송원물류·기호물류 주주총회를 개최, 16일에는 송원초등학교·송원대학교 졸업식에 참석, 26일에는 임방울재단 정기총회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2일 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 13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대국민 경제설명회에 참석, 16일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조찬간담회에 참석, 22일에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간담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도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2일 한국문화원 전남도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7일에는 4H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 16일에는 광주 전남 21세기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 20일에는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통일문제 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2010 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 총회에 참석, 28일에는 대한 건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5일 건설공제조합 회의에 참석, 21일에는 2010 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 총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2일 상록회관에서 열린 엑스포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 5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자문위원회의에 참석, 15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21일에는 2010 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 총회에 참석, 28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8일 진도공사현장에 출장.

시 파견근무 시설서기관 권정기(1.26) ▲충무과 행정사무관 김규진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성진 ▲"연안계획과 서기관 박경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행정사무관 박병화 ▲"신항출장소장 행정사무관 안중수 ▲해양수산부 행정사무관 김재철(2.10)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심재현 ▲국립수산진흥원 행정사무관 최경욱(2.19) ▲국립수산진흥원 증식부장 김윤 ▲"동해수산연구소장 전임기 ▲"서해수산연구소장 김안영 ▲"남해수산연구소장 박영철 ▲"어업자원부 연근해자원과장 김진영 ▲"원양자원과장 정의철 ▲"수산공학과장 백철인 ▲"증식부 생물공학과장 이종윤 ▲"어장환경부 해양연구과장 김복기 ▲"적조연구과장 이삼근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손팔원 ▲"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박승운 ▲"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고태승 ▲"통영분소 박승렬 ▲"청평내수면연구소장 조용철(1.26)

인사

▲해양수산부 □이사관 승진 △수산정책국장 강무현 △감사관 양병관(2.12) □부이사관 승진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장 이용기(2.9) □서기관 승진 △충무과 이준용 △공보관실 박하령 △감사담당관실 유영하 △안전기획담당관실 정진관 △수산정책과 엄기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조지현(2.7) □전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장 홍근 ▲"시설과장 신명 △부산광역시

외부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
▲박재준씨(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이신복씨(대한어망공업협회 전무이사)

부음

▲국중택씨(주식회사 국일기업 회장)는 2월 21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전북 익산시 합읍읍 석내리 선영.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월29일 일본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무라가미 구니히로 과장보좌, 소다 아키토 계장 등 어항어촌 관계관의 예방을 받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 환담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가 시작된 올해는 이에 걸맞게 협회 역시 역동적이고도 생동감 넘치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혁신할 각오입니다.
어항인 여러분도 열린 가슴과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어촌, 활

력 있고 쾌적한 어항을 기필코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항이 어촌의 핵으로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만민의 장 나아가 국제교류의 장이 되는 국민적 어항어촌 구현을 위해 우리의 의지와 힘을 모아 다 같이 매진합시다.
끝으로 어항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 47% 1·4분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도모

58개 국가어항에 1,325억원 투자

해양수산부는 지역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충남 남당항 등 6개 신규지정 어항을 비롯 58개 국가어항(제1·3종어항)에 총 1,32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충남 남당항 등 58개 국가어항에 모두 1,325억원을 투입, 방파제와 물양장 등 어업인 숙원사업인 어항시설을 대폭 확충·정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2001년 국가어항공사 집행계획을 전국 지방청에 시달렸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도모를 위해 금년도 사업예산의 47%인 628억원을

1·4분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등 어항공사 대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기로 했으며 태·폭풍기(7~8월) 이전에 주요 시설공사를 마무리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어항공사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발주되는 신규어항공사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액입찰을 실시, 장기계속 계약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충남 남당, 강원 공현진, 인천 선진포, 전남 회진, 경남 원전, 전남 여호 등 6개 신규어항의 경우 올해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해 상반기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강원 수산, 전북 어청도, 부산 대변 등 23개 계속투자항에 대해서는 총 923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시설 노후화로 어항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경북 감포, 충남 오천, 전남 계마 등 전국 33개 어항에는 총 367억원을 들여 주요 어항시설의 보수와 항별 준설사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수산업관련시설의 설치가 제한된 전국 22개 연안항 및 무역항에 대한 시

설기능을 제고키로 하고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항만내 어항구를 설정한 지역의 경우 어구보전시설, 수산물처리·가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항만내 어항시설 어업인 편의도모

앞으로 항만구역안에서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어항법상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업인들의 수산업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항만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어항이 아니었기 때문

전국연안 국민 해양레저공간으로 활용

해양수산부는 21세기 해양시대에 부응, 연안수역에서 어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레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면허·허가어장에 대한 체험, 낚시, 관광어장 등 유어장 지정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지난 1월 29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연안어촌의 앞바다는 일반 국민들의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패류채취, 낚시, 스킨스쿠버, 체험활동, 주말어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어업인들에게는 어업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원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수산업법 개정내용에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고 일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 제한기간을 3년에서 어업개시후 1년으로 단축 △영어조합법인이 설립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유독물 사용 금지범위를 어구·어망 이물질 제거 목적도 금지하여 청정 수산물 공급 및 바다환경 보호 △보호수면안에서 어로행위 등 경미한 법령 위반사항은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

에 수산업관련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었던 전국 22개 대부분의 연안항과 일부 무역항에 대하여 항만내 어항구를 설정한 지역내에서는 어구보전시설, 수산물 처리·가공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행정규제법에 의한 규정준비조치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하는 예산사용료 신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산업자의 자율적 영업행위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항만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였다.

이 같은 항만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후속개정을 거쳐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1년도 국가어항(제1·3종어항) 사업비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별	계속투자항	신규투자항	유지·보강항
계	132,517	6개항 35억원	33개항 367억원
부산	5,000	대변 5,000	-
인천	2,800	울도 2,300	선진포 500
울산	1,070		정자 1,000 방어진 70 거진 1,200
강원	17,630	안목 5,000 수산 7,000	대진 200 대포 230 임원 2,500 남해 1,000
충남	10,400	모항 5,000	오천 2,800 안흥 1,600
전북	8,600	어청도 6,000	격포 1,300 말도 800 구시포 500
전남	39,987	풍납 3,500 초도 4,500 남도 3,000 보옥 3,500 득암 4,500 소흑산도 6,282 여서 3,500 수품 800	안도 1,000 내발 25 녹동 2,000 계마 2,050 사동 180 국동 2,000 청산도 1,200 서거차 950
경북	26,781	구산 3,500 오산 3,500 축산 2,500 현포 8,000	감포 3,217 저동 2,000 죽변 2,000 대보 1,000 양포 1,000
경남	17,450	지세포 4,000 구조라 2,000 삼덕 2,500 광암 1,900 매물도 4,500	외포 400 맥전포 1,000 미조 400 신수 250
제주	2,799		모슬포 1,800 신양 619 김녕 380

대진·양포 등 10개 어항 민자개발 박차

대진, 거진, 양포 등 전국 10개항을 대상으로 한 어항 민자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촌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관광레저, 문화·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관광·산업 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올해부터 대진, 거진, 양포 등 전국 10개 어항을 대상으로 민자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국가·지방어항은 수산기능 위주로 개발돼 도시지역과의 연계개발 및 관광객의 접근이 어려워 풍부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방파제, 물양장 등 기

본시설 완공후 후속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미비하고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슬럼화 등 난개발이 우려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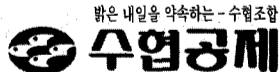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지역 어항에 친수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단지로 하기로 하고 우선 배후지 이용률이 저조한 대진, 거진, 양포 등 10개항을 시범 어항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민자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잠재력이 높은 어항을 중심으로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우선 공지로 남아있는 배후지를 매각, 어촌관광단지조성 등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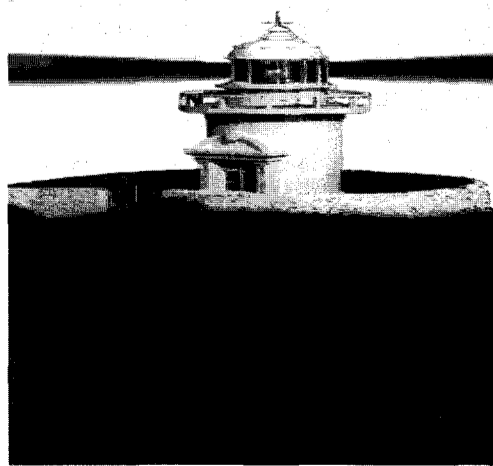
특성에 맞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체개발과 대협업체를 통한 개발, 신탁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중이며 상반기중 개발방식, 매각지 용도변경, 개발모델수립 등을 완료해 연말안에 토지매각 및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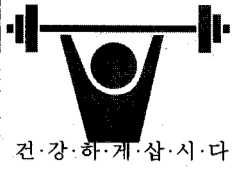
한편 해양수산부가 개발 추진중인 대상어항은 대진, 거진, 양포, 위미, 서망, 안흥 등 총 10개 어항이며 금년에는 이중 6개 어항, 8만 333㎡의 배후부지를 매각해 관광레저, 문화·복지, 가공·물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두어오심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진통제 복용으로 염증 가라앉히고 관절보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병행해야 효과

류마티스관절염은 우리 몸 속의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이다. 따라서 관절이 부었다고 관절내에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우리 몸 속의 면역성에 이상이 생겨서 온다고 알려져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이상을 일으킨 백혈구가 관절을 직접 공격할 때 발병한다. 이밖에 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또는 유전적 소인이 원인으로 짐작되고 있으나 색맹이나 혈우병처럼 강한 유전성은 아니며, 전염성 또한 없다. 우리 몸의 면역성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과는 달리 전 연령층에 걸쳐 발병한다.

조기에 알 수 있는 증상으로는 아침에 특히 심한 관절통 이외에 날씨에 매우 민감해지거나 눈병이 잦고 피부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기거나 입안이 자주 헐고 손가락이 시리고 색깔이 변하거나 특별한 원인도 없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 등이다.

통풍이나 홍반성낭창 등 관절이 아픈 질병은 류마티스관절염 이외에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들도 쉽게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가 제시한 류마티스관절염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아침에 관절의 뻣뻣한 증

세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것 △관절염의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것 △통증이나 부기가 좌우 대칭으로 일어날 것 등인데, 의사들은 보통 이 진단기준과 관절 X선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최종 진단을 내린다.

류마티스관절염에는 진통제가 주요 치료제로 처방되는데 환자들 중에는 습관성이 된다는 이유로 복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진통제의 복용은 염증을 가라앉혀 진통을 덜어줌으로써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관절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위나 간을 해친다고 해서 물리치료만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물치료와 병행하지 않고는 효과를 볼 수 없다.

관절의 기능이나 근육의 힘, 혹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관절안의 활막을 없애는 수술요법을 쓰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속설중 그런대로 맞아지는 것으로는 목욕과 뼈주사에 관한 것들이다.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병이어서 목욕은 통증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통증을 덜지만 자주 맞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뼈주사는 뼈가 아닌 뼈와 뼈 사이의 관절에 맞는 주사로, 한 관절에 연 3~4회를 넘어서는 않된다. 그 이상 맞을 경우 관절을 약하게 만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침하판 등의 계기를 설치하고, 재하성토를 철거할 때까지 계측 감시를 한다.

(10) 재하성토공 샌드드레인말뚝 타설 종료후, 재하성토를 시공한다.

육상공사의 경우는 덤프트럭으로 반입한 것을 불도저로 층상으로 고르게 하는데, 해상공사에서는 모래살포선이나 그레브선으로 천천히 계획높이까지 투입 성토한다.

(11) 중기운반공(반출) 공사에 사용한 작업기계를 해체하여 반출한다. 해체나 짐을 싣고 부리는 것은 트럭크레인으로 하고, 운반은 트레일러나 트럭을 사용한다.

(12) 성토 철거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침하를 확인한 뒤, 도져서블이나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재하성토를 철거한다. 해상공사에서는 그레브선으로 굴착공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4.3.4 시공관리

샌드드레인공사의 시공관리는 재료관리와 품질관리 및 규격관리이다.

(1) 재료관리(말뚝용 모래) 모래말뚝은 연약토층에서 압밀할수한 간극수를 장기간에 걸쳐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필터로서의 효과를 장기간 계속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말뚝용 모래는 투수성이 양호하고, 대상 연약지반의 토립자가 막히지 않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52)

第4章 地盤改良工

는 입도분포의 것이 이상적이다.

대체로 말뚝용 모래의 입도분포는 일정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그 실트분 함유량은 특기시방서로 따로 지정한다. 실트분 함유량의 허용범위는 대략 4%에서 10%이하이고 드물게는 3%이하의 사례도 있다.

기타, 생산지를 지정할 경우나 말뚝용 모래의 내부마찰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득이 곤란한 재료의 지정을 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뚝용 모래의 입경가적곡선을 그림 4.3.7에 나타낸다.

본 공법의 재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좋다.

- a. 모래말뚝용재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 b. 고풍수비의 점성토중에 있고,

필터재로서의 투수성을 장기간에 걸쳐 기대할 수 있는 것

c. 시공면에서는 케이싱에서 모래가 잘 빠질 것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모래 이외에도 자갈이나 광재 등이 사용되는 일도 있다.

① 공사시행전 말뚝용 모래의 채취지마다 모래의 시료, 입도시험성적표 및 생산지를 명시한 도서를 제출시키고, 투수성, 틱막힘에 대한 평가, 공사규모에 알맞는 생산량의 확보 및 생산설비에 대하여 시방서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공사시행중 공사규모나 공사기간에 따라서 적시에 입도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빈도는 원칙적으로 5000㎡에 1회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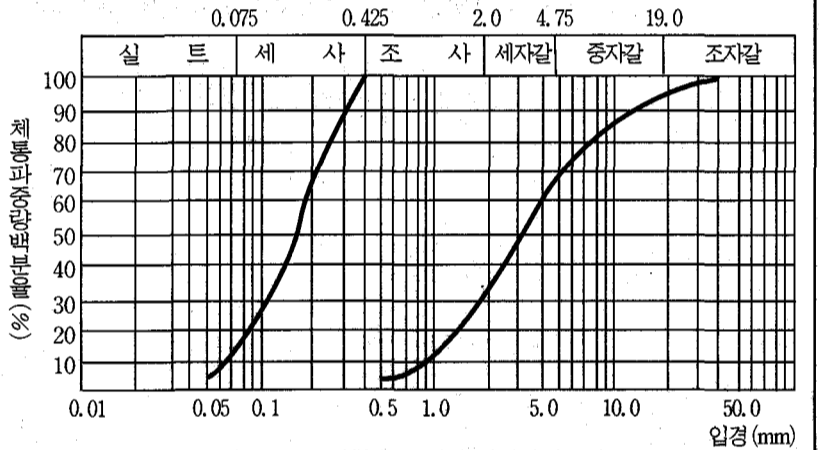


그림 4.3.7 말뚝용 모래의 입경가적곡선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 창설 이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에 의해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앞의 만민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오랜 경험을 통해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은 상담소는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 법률구조법인
상담소는 법률구조법에 의거하여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된 후 현재까지 무료로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및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다. 상담소의 기구와 조직
서울 여의도에 본부를 두고 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에 1개의 출장소를 비롯하여 전국 29개 지부와 6개의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본부에는 상담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하는 소장과 그 밑에 소송구조, 지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
관리, 총무, 출판·홍보, 도서실, 교육부 등 각 기구가 있다.
2. 법률상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면접상담 - 상담소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해결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는 면접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지며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상담을 맡고 있다.
○ 서신 및 전화상담 - 편지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상세한 회답을 해 주며 간단한 서류와 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전화로도 응답을 하고 있다.
○ 지상상담 - 신문이나 잡지에 고정란을 통하여 투고해 오는 법률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고 있다.
○ 순회상담 - 상담소에 찾아올 수 없거나 집단 상담이 필요한 곳을 방문, 순회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 출장 상담 - 서울 시청에 주택 임대차 상담실을 파견하여 주택임대차에 관

가. 목요 가족법 강좌
매주 목요일마다 가족법의 전과정(약혼, 혼인, 이혼, 친자, 양자, 상속, 유언, 호적)을 강의하고 있다.
나. 재산법 강좌
날로 늘어가는 여성들의 경제능력 향상에 맞추어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매회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 세법 강좌
각종 세금에 관한 지식의 필요에 따라 세법 강화를 개설하였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모든 세법 내용을 매회 2개월 과정으로 열고 있다.
라. 시민 공개강좌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공개강좌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 어머니 학교
가정문화 요인중의 하나로 고부갈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위한 교육 및 집단 상담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바.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노인 문제 및 복지 상담과 더불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강좌 및 취미교실을 개설, 4개월 과정으로 열고 있다.

생활정보

생활정보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내